

성경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묵상(89)(11/13/2021)

제 3 권 내적 위로

제 3 장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귀 기울여야 하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주의하지 않음, 5-7 절

요 12:48 -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시 69:17 -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시 143:6 -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 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셀라).

시 143:10 - 주는 나의 하나님이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5. 내 말들을 마음에 기록하고 부지런히 묵상하라. 시험받을 때, 그 말들이 네게 꼭 필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읽기는 읽어도 알 수 없었던 말들은, 내가 너를 찾아가는 날에 그 뜻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내가 택한 자들을 찾아가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시험이고, 다른 하나는 위로이다. 내가 택한 자들을 날마다 교훈하는 방식에도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들의 악들을 책망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덕을 키우도록 권면하는 것이다. 내 말들을 듣고도 멸시하고 배척하는 사람은 마지막 날에 있을 심판을 자초하는 것이다(요 12:48).

믿음의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 6. <제자> 주 나의 하나님이며, 주는 나의 모든 선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데, 감히 주께 무엇을 아뢰 수 있겠습니까?(창 18:17). 나는 지극히 보잘것 없고 미천한 주의 종이고, 벌레 같은 미물보다 못한 자로서, 내 자신이 알고 있고 감히 말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비천하고 경멸 받을 만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주님만이 선하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고, 모든 것을 주실 수 있으시며,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으신 분이시며, 오직 죄인만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여, 주는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심을 기억하셔서(시 25:6), 주의 은혜로 내 마음을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은 자신이 시작하신 일이 헛되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닙니까?

7. 주의 자비와 은혜로 내게 힘주시지 않으시면, 어떻게 이 비참한 삶을 감내할 수 있겠습니까? 주의 얼굴을 내게서 돌리시고(시 69:17), 주께서 나를 찾아오시는 날을 지체하시며, 주의 위로 주심을 미루시고, 주의 위로를 거둬 가심으로써, 내 영혼이 “마른 땅 같이” 되는 일이 없게 해 주십시오(시 143:6). 주여, 나를 가르치셔서, 주의 뜻을 행하게 해 주십시오. 나를 가르치셔서, 주 앞에서 합당하고 겸손하게 살게 해 주십시오(시 143:10). 주는 나를 진정으로 아시는 나의 지혜이시고, 창세 전부터, 그리고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나를 알고 계셨던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해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함으로 하루를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그 양식을 매일 같이 먹지 않는다면 영적으로 죽을 수 밖에 없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시면서 이 진리를 분명히 알게 하셨다. 신 8:3 - 너는 낮추시며 너를 주리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만나를 그날 먹을 양만큼만 거두게 하시고 만약 다음날을 위해 저장하면 부패하여 먹지 못하게 하셨다. 따라서 백성들은 매일 아침 만나를 기다릴 수 밖에 없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은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며 바라보고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그것이 습관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육신을 가진 인간은 육에 필요한 양식, 물질, 그 외에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 살지만, 그것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성도가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하면 영적으로 굶주리고 병들어 죽어갈 수 밖에

없다.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암 8:11 - 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와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매일 아침 하늘을 바라보며 만사를 기다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매일 주님의 말씀의 은혜, 영적인 양식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해야 한다. 성도는 영의 양식을 먹어야 살 수 있다.

우리가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 심령이 말씀으로 채워지며, 말씀을 붙잡을 때, 시험에 들지 않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동산에서 뱀의 유혹에 넘어간 이유는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뱀의 속임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이다. **창 3:2-5 - 2.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4.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5.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담과 하와가 유혹에 넘어간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이며, 주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이 자신들의 마음과 생각의 중심을 차지하도록 허용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을 때 말씀으로 물리치셨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예수님은 마귀가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유혹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마 4:4, 신 8:3)**고 하셨고, 마귀가 거룩한 성의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리라고 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마 4:7, 신 6:16)**고 하셨다. 그리고 마귀가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주겠다고 하자,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마 4:10, 신 6:13)**고 하심으로 마귀의 시험을 완벽하게 물리치셨다. 예수님의 영적 무기는 바로 말씀이었다. 그래서 바울은 엡 6 장에서 성령의 전신갑주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으로 묘사했다(엡 6:17).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으로서 우리의 강력한 영적 무기가 된다.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을 때, 몇 가지 중요한 명령과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것이었다. **수 1:7-8 - 7.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시 119 편 저자는 청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므로 자신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것이라고 노래했다. **시 119:9-10 - 9.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10.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화의 삶은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그래서 칼빈은 율법의 제 3 사용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키는 것은 성도의 성화의 삶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매일 그리고 순간순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가?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 중심에 있는가? 지금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며 나의 삶을 주도해 가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이끌릴 때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함께 나눌 기도 제목.

1. 광야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영적인 만사를 주셔서 우리 영이 살아나고 삶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2. 한국과 미국에 세워주신 주의 몸된 교회들이 성령충만 가운데 참된 영적 갱신과 부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3. 북한을 비롯해서 기독교 신앙을 박해하는 나라들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오늘도 강력한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영적인 힘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4.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께 합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게 하옵소서(시 19:14).